



## 아르헨티나의 대두 분쇄업체, 콩 부족이 심화되면서 '재난'에 직면 (Argentina's soy crushers face 'disaster' as bean shortage sharpens, chamber head says)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 의회장은 역사적인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대두 가공 공장에서 대두가 고갈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장 생산 능력의 3분의 2 이상이 유틸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 국가는 수년간 대두유과 대두박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다. 올해는 농작물이 황폐화되고 부채가 많은 정부가 달러를 벌기 위해 대두 수출을 추진함에 따라 이 왕관은 미끄러졌다.

곡물 수출업체 및 분쇄업체 CIARA-CEC의 Gustavo Idigoras 회장은 "우리는 비참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파라나 강을 따라 있는 이 나라 분쇄 공장의 유틸 용량이 현재 6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대두 수확은 내년 4월부터이고, 이달 말까지 남아 있는 대두의 양은 300만 톤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틸 용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00만 톤으로 2024년 5월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며, "우리는 내년에 더 나은 기후와 더 높은 농업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페이지를 넘기고 싶다."고 말했다.

유틸 용량의 증가 가능성은 아르헨티나의 Bunge 및 Cargill과 같은 주요 곡물 거래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며 경쟁 생산업체에게도 기회를 열어주었다. 호황을 맞은 이웃 국가 브라질이 대두박 수출량에서 아르헨티나를 앞질렀다. 아르헨티나의 2022/23년 대두 수확량을 약 2천만 톤으로 떨어뜨린 가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분쇄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인근 지역인 파라과이, 볼리비아, 브라질로부터 기록적인 양의 대두를 수입해야 했다. Idigoras는 "아르헨티나는 올해 총 1천만 톤의 대두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새로운 추정치를 밝혔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8월까지 대두 수입량은 820만 톤으로 기록적이며, 이는 이미 가뭄으로 타격을 받았던 2018년의 수입량 640만 톤을 넘어섰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8월 아르헨티나의 대두 분쇄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1,960만 톤으로, 이는 2015년 이후 공식 기록에서 해당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 낮은 수위가 독일의 라인강 운송 방해

### (Low water hampers Rhine river shipping in Germany)

상품 거래자들은 목요일, 최근 건조한 날씨 이후, 낮은 수위로 인해 독일 라인강에서 화물선이 완전히 적재된(만재) 상태로 항해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일반적인 운임에 할

증료가 추가된다고 말했다. 교역상들은 카우브(Kaub)의 관문을 포함해 뒤스부르크와 쾰른 남부 대부분의 강에서 낮은 수위로 인해 수송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선박은 선박 유형에 따라 약 50%만 카우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심이 얕다는 것은 선박 운영자가 선박이 만재 상태로 항해하지 않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운임에 할증료를 부과하여 화물 소유자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7월의 건조한 날씨로 강이 너무 얕아져서 비가 수위를 높이기 전까지 운송을 방해했다. 거래자들은 앞으로 며칠 동안 하천 유역의 건조한 날씨 예보로 인해 즉각적인 개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인강은 곡물, 광물, 광석, 석탄, 난방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 등의 상품을 운송하는 중요한 운송 경로이다. 독일 기업들은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라인강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후 2022년 여름 공급 병목 현상과 생산 문제에 직면했다.

### 아르헨티나 밀 생산성, 최근 비로 인해 위험

#### (Argentina wheat productivity at risk after recent rains disappoint)

수요일, 로사리오 곡물 거래소는 지난 주 내린 소나기가 메마른 농경지를 진정시키는데 실패한 후, 아르헨티나의 농업 중심지는 밀 생산성 손실을 방지하고 조기 옥수수 파종을 끝내기 위해 곧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 강국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밀의 주요 수출국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옥수수 수출국이지만, 역사적인 가뭄으로 인해 이전 2022/23년 농작물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서부의 농업 지역은 토양 수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비를 기다리고 있다.

보고서에서 거래소는 "작물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15~20밀리리터의 물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업 지역의 절반 미만이 이 정도의 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가 부족하면 2023/24년 밀 생산량이 1,500만 톤일 것이라는 로사리오의 예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래소의 2023/24년 옥수수 생산량 5,600만 톤 예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 거래소가 발표한 별도의 기상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 북서부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농업 지역 대부분에 앞으로 며칠 동안 10 밀리리터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omson Reuters